

정읍시, 모든 시민에 30만원 지원금

불필요한 지출 줄여 220억 절감…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
다음달 19일부터 신청…소득 무관하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정읍시가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
감하는 생활 위기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에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었다.

시와 시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책적 연속
성 아래 민생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라고 취지를 설
명했다. 지원 대상은 지금 기준일인 12월 15일 기
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다. 소득이나 재산,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빚을 내거나 무리하게 편성
한 예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의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됐다.

올해 시는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

한 지출을 줄여 220억원을 절감하는 등 총 429억
원의 여유 재원을 확보했다. 이 중 305억원을 이
번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투입해 시민들의 고
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방
식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
통시장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불카드
형태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수정 시장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위
기를 견디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숨을 돌
릴 수 있는 온기를 드리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내
린 결정”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의 삶
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시의회와 협력
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김치원료 공급단지’ 설계 착수

대산면 산정리 일원 320억 투입…1차 용역 착수보고회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감도.

김치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화 및 지역 농가·중
소업체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보고회에서는 절임제작장동 배치안과 및 50
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50동 건축계획안 등 설계
초기 핵심 사항이 설명됐다.

참석자들은 생산·저장·가공·물류 동선의 효율
성, 향후 운영 관리 체계, 친환경·스마트 설비 도
입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현장 기
술 경험과 산업 동향을 기반으로 시설 규모 및 배
치 타당성, 절임·세척·냉장·포장 등 주요 설비 기
능 등에 대해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
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봄철 생활인구 증가 ‘축제가 효자’

올 5월 42만명…주민등록의 8배
청보리 축제·외국인 근로자 증가
특산품 구입 등 지역 경제 ‘활력’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의 생활 인구가 봄철 축
제 영향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5월 군의 생활인구는 42
만 600여명으로 주민등록인구(5만716명)의 8배
를 웃돌았다. 이는 1월 24만 9000여명보다 최대
17만 1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4월과 6월도 각각 37만 8000여명, 30만 3000여
명에 달했다.

봄철 생활인구 증가 추이는 지난해에도 마찬가
지였다. 지난해 1월 고창군의 생활인구는 19만
3000여명이었지만 4월에는 36만 4000여명으로
17만여명 늘었고, 5월(35만여명)과 6월(31만
5000여명)에도 30만명을 넘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 외에 일
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
는 새로운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
구를 산정하고 있다.

고창군은 매년 4~5월 열리는 청보리밭축제가 인
기를 얻고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대규모 유입



관광객들이 청보리밭 축제가 펼쳐지는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청보리밭 일대를 걷고 있다. 학원농장 청보리밭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촬영지다.

〈고창군 제공〉

되면서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경관 축제로 꼽히는 고창청보리밭축
제는 올해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23일간 51만명이 방문할 만큼 사랑을
받았다.

고창군은 관광객들이 특산물을 구입하고, 고향
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

다고 분석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의 매력과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가 많은 방문객을 이끌고 있
다”며 “앞으로도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더욱 강
화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고창을 만들겠
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의료원 인근에 1.5km 무장애 나눔 길

14억 투입 보행 약자 숲 체험…목재데크·안전 난간 등 설치

남원시가 남원의료원 인근에 1.5km 길이의 무장
애 나눔 길을 조성했다.

무장애 나눔 길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보행 약자가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
한 길이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총 14억원을 투입해 목재데크로 길을 만들고 안전
난간, 의자 등을 설치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의료원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내년 운영에 들어가는 공공 산후조리원의 산
모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자연과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자연친화형 보행 환경을 지
속해서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본격화

내년 상반기 설계 완료 뒤 하반기 착공…에너지 체험·교육의 장

남원시가 2027년 남원·순창 광역 소각시설 설
치 예정에 따라 발생한 폐열 활용의 핵심 프로젝트
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
계’를 공식 착수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에
너지환경부 등 수차례 방문한 끝에 2025년 기후에
너지환경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됐다.

애초 국비 3억에서 13억9000만원(국비 13억,
도비 9000만원)으로 증액 확보했고 2026년 25억
1000만원(국비 17억, 도비 8억1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상황이다.

시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설계를 마무리하고 관
련 인허가 등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공사를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뿐 아니라 에너지 체험·교육 등 조성으로 주
민 참여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27일 가수 박창근·국악단 등 참여

정읍시가 연말을 맞아 27일 정읍사에술회관에
서 희망찬 새해를 기약하는 ‘정읍 겨울 하모니 음
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박창근과 정읍시립국악
단을 비롯해 클래식, 댄스,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한다.

정읍시립국악단의 웅장한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
로 ‘녹두 4종주단’의 품격 있는 연주, 테너 정기주

의 힙찬 목소리, 가수 조연비의 무대가 이어진다.
또 청소년 댄스팀 ‘Team A.I.M’의 역동적인 퍼
포먼스와 ‘블루밴드’의 신나는 연주가 더해진다.

특히 정읍시 흥보대사로 활약 중인 가수 박창근
이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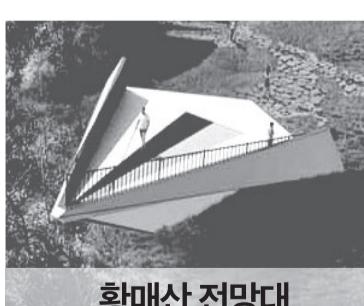
정읍시 관계자는 “가족·연인·이웃과 함께 참석해
예술인들의 열정과 시민의 뜨거운 호응이 어우러
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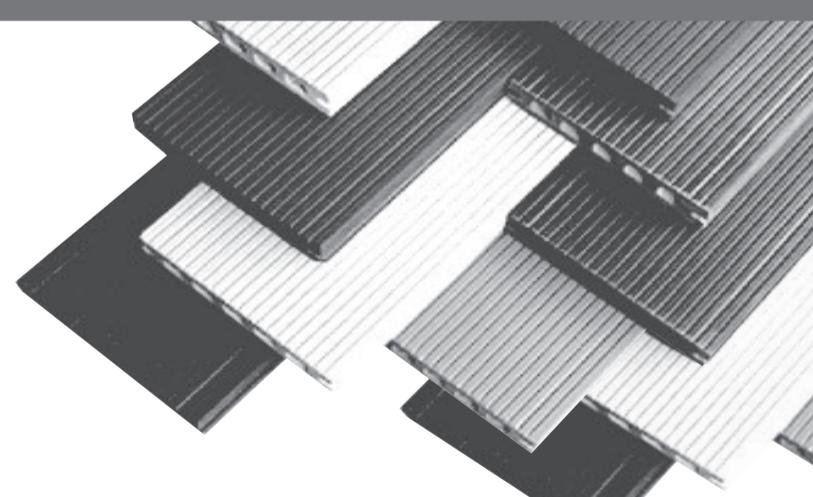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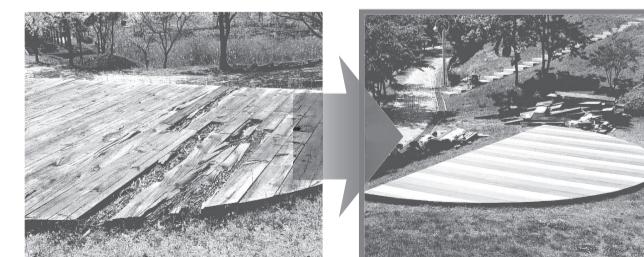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